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복거일 소설가

어느 국가든 다른 국가들로부터 감추어야 할 기밀들이 있다. 우리처럼 전쟁의 위험 속에 놓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 기밀이다. 다른 조건들이 비슷할 경우, 군사 기밀은 전투와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2차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군사 기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패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독일군의 '에니그마'는 기계로 변환되어서 이론적으로는 다른 나라가 풀 수 없는 암호였다. 그래서 독일군은 전쟁 내내 그것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암호의 안전성은 그것을 쓰는 사람들에 달렸다. 병사들은 흔히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실수를 한다. '에니그마'는 상업용

허술한 국가 기밀 관리

암호에서 출발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폴란드 정보기관에선 초기 버전을 상당히 해독했다. 그런 자료와 독일군의 실수들에 위대한 수학자 앨런 튜링의 통찰을 바탕으로, 영국 정보기관은 '에니그마'를 거의 다 해독했다.

일본군도 자기 암호가 안전하다고 믿었다. 한자를 많이 쓰는 일본어는 알파벳을 쓰는 서양 언어보다 해독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었다. 그것은 근거 없는 낙관이었다. 일본군 암호는 독일군 암호보다 훨씬 쉽게 해독되었다.

반면에, 독일군과 일본군은 영국군이 나 미군의 암호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은 거의 모든 전투에 큰 영향을 미쳤고, 독일과 일본은 이길 수 있었던 전투에서 오히려 졌다.

두드러진 예를 들면, 독일군 암호를 해독한 영국군은 지중해를 건너던 수송선들의 70퍼센트를 격침시켰다. 그래서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북아프리카의 독일군은 에르빈 롬멜 원수의 뛰어난 지휘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국군에 패퇴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작전의 실패는 중동의 석유를 확보하려던 독일의 기본 작전을 좌절시켰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은 통신 해독을 통해 일본 함대와 조우할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예측했고 미국 함대는 일본 함대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다. 이 해전에서 항공모함 4척을 모두 잃은 일본은 전쟁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넘겨주었다. 일본 조종사들은 미군이 망망대해에서 일본 함대를 요격할 것은 너무 이상하다고 지적했지만, 기밀 보안을 쟁겨야 할 아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제독은 암호를 바꿀 생각을 하지 못했다. 결국 통신 해독으로 그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한 미국은 전투기들로 그가 탄 항공기를 격추시켰다.

근자에 국군은 북한군에 해군당해서 중요한 기밀들을 모조리 탈취당했다. 국방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과연 작전 계획들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지 걱정스럽다. 2차 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범한 치명적 잘못을 피하려면, 국군 지휘부는 북한군이 국군의 작전 계획과 약점들을 모두 알고 대비한다는 가정 아래 작전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해킹은 외주 업체 직원이 실수로 외부와의 연결 고리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해명했다. 그 직원의 '실수'가

정말로 실수였는지, 그런 '실수'를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한 국방부의 '실수'가 정말로 실수였는지 시민들로서 불안할 따름이다.

분명한 것은 모든 문제들을 실수로 돌리면 보안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나올 수는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기밀 보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패로 평가된 2013년의 국가안보국(NSA) 기밀 유출은 외부 전문가 에드워드 스노든이 저질렀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밀 안보에서 외주 업체들의 몫이 더욱 커질 테이므로, 그들을 통한 기밀 유출을 막을 방도를 강구하는 것은 긴요하다.

국군의 취약한 기밀 보안은 우방이 우리와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 중요한 정보들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우리로서 큰일이다. 며칠 전 미군 사이버사령관 마이클 로저스 제독이 공개적으로 송영무 국방장관을 만난 일이 미국의 걱정과 경고를 뜻한다고 보도되었다.

이런 상황은 국군만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사정을 잘 인식하고 국군에 대한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어야, 비로소 국군이 제대로 북한군을 막아낼 수 있다.

社說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 연기 혼란 없도록

어제 치러질 예정이었던 2018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23일로 전격 연기됐다. 전남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국 고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늦어도 21일까지 수험생에게 고사장을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 대학입시 일정도 일제히 일주일 연기된다. 18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대학별 논술고사도 일주일씩 늦춰져 수능 시험 이후 4월로 미뤄진다.

에초 대학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등 수시모집 전형을 마무리하고 12월 15일까지 학교별로 합격자 발표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12월 22일로 밀리게 됐다. 수시 등록 기간은 다음달 18~21일에서 25~28일로, 수시 미등록 총원 마감은 12월 28일에서 1월 4일로 미뤄진다.

정시모집도 일주일 늦춰진다. 당초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였던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기간 중 대학

별 사흘 이상씩)은 1월 6~9일로 변경되고, 모집권(가·나·다)별 전형기간도 모두 일주일씩 뒤로 밀린다.

수능시험 연기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시험일에 맞춰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 수험생들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지만 남은 1주일을 잘 활용하고 이기 말바반은 수험표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가족들도 수험생들이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고사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시험지구별로 보관 중인 시험지의 유출이나 도난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출제 위원과 인쇄소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도 지진, 남의 나라 일 아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에 전국이 공포에 떨었다. 광주·전남 지역도 일부 주택이 파손돼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문제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광주·전남 지역 주택(공동·단독 주택, 학교, 공공업무 시설 등)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만일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건물이 붕괴 위험에 놓여 있는 셈이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1988년 6층·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을 시작으로 현재 3층·연면적 500㎡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올 연말 2층·연면적 200㎡ 이상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1988년 이전 건물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이며, 6층 미만 건물은 2005년까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주·전남은 타 시도에 비해 저층 건물이 많은 탓에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위험 건물도 그만큼 많은 실정이다.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주택 9만 7809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곳은 11.3%(1만 1109동)에 불과하며, 전남의 내진설계 비율은 2.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전국 평균이 약 40%에 달하는 데다 부산 27.6%·대구 29.7%인 점을 감안하면, 호남 지역은 영남에 비해 지진 대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진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내진설계의 무무화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중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된 오래된 건물에 대한 내진 대책은 한시 가 바쁘다.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용자 지원이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일본처럼 지진에 준하는 지진 대비 훈련의 정기화도 필요하다.

종교칼럼



장현권 서정교회 담임 목사

길거리에 나선 방송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멀지만 그래도 든든한 방송인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으면 예외없이 독재정권이 되지요. 그들이 새벽에 제일 먼저 점령하는 곳이 방송국과 신문사이지요.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또한 사회의 목탁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지요. 이처럼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고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근현대사 구한말 전제군주제 시대에서 일제 강점기, 이후 해방과 함께 민족분단 역사에 언론 역시 굴절되었지요. 세월호 참사 때는 '기레기'라는 말도 있었습니

다. 저는 언론 가운데 방송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방송은 무엇보다 공정한 보도와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의 광장을 제공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공정성은 정확성이지요. 그래서 공영방송은 특정 이익 집단의 선념, 사상을 지지·홍호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끄럽고 말하기가 불편한 독재 권력의 입과 수족이 되었지요.

물론 거기에 저항하고 울금음을 위하여 온몸으로 투쟁하다가 해직과 고통을 당하는 많은 방송인도 있었지요. 특히 80년 언론학살에 해직된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에 우선한다'는 신념으로 투쟁을 했지요.

지금 길거리에 있는 방송인들이 파업 중에 있지만 한때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뉴스와 시사, 드라마, 예능, 라디오 등에서 용감하게 고발하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파괴했지요. 뉴스를 사유화하고,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해고, 징계, 유배 등 아만인 시절이 된 것입니다. KBS와 MBC는 야수처럼 장악되었지요. 처참하게 망가진 MBC는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이 개입하여 파괴 공작을 했습니다. 인적 학살과 시사프로그램 퇴출이지요. 이를 위해서 국정원은 노조 무력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지요. 결국 공영 방송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민영화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기자, 피디, 아나운서 등을 밟게 되었지요. 전국적으로 2000여 명이 참여한 촛파업 열기는 그만큼 공영 방송의 갈망이 뜨거웠다고 봅니다.

KBS 역시 지난 9월 4일부터 촛파업을 시작했지요. 파업에 나선 이유는 단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장악 9년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간 공영방송을 주인의 국민적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방송인들은 권력과 차별에 맞선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핏과 눈물을 담아내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주인인 시청자가 제대로 대접받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마음인 것을 압니다.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해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진실과 정의의 길에 있는 분들과 연대합니다.

결국 MBC는 김정경 사장 해임으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사동을 걸었습니다.

촛불 시민 혁명이 없었다면 MBC·KBS파업은 불가능했습니다. 광주민중항쟁때 광주MBC 건물이 시민의 손에 불타고 그 뒤 광주 MBC는 어떤 권력의 탄압에도 시민 편에 서는 것을 지프로 삼았지요.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말고 승리의 그날 나뭇잎들도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준비에 응원합니다. 차가 워진 날씨가 서서히 온을 잡고 소문과 공감, 그리고 언대로 참된 방송을 만들어 가는 일에 함께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기 고



이대흠 시인

늦기를 남도는 먹색이다. 초록이 지고, 단풍이 지고 나면, 나무나 풀들도 색을 지우고 선만 남긴다. 붓으로 특색 천 것 같은 풍경이다. 산이나 들판도 먹으로 친도 포 자락 같다. 눈이라도 내린다면 더할 것이다. 농담(濃淡)이 있다. 거기에 온 세계가 다 담긴다. 남도가 먹으로 덮였다. '수묵 프레비엔날레'로 남도의 숨구멍이탈 수 있는 목표와 진도 일대에 수묵화 물결이 덮친 것이다.

수묵화로 들어가는 입구는 호남선의 끝이자 시작인 목포역이다. '검은 땅위에 하얀 수묵화'란 제목으로 전남예술고와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수묵화를 그렸다. 정확히 말하면 수묵화가 아니라 분필화였다. 화풍만 수묵화의 전통적인 방법을 따랐다. 하지만 피사티브 등 고차제를 이용

그림에서 시를 읽고 음악을 듣는다

해 '2017 전남 국제 수묵 프레비엔날레' 기간 동안 전시할 계획이었던 지워지고 없어. 기술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전시장은 곳곳에 흩어져 있다. 목포에 13군데, 진도에 3군데이다. 도청으로 가니 구석진 곳에 두 화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김선두와 김억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그림을 비추는 조명은 따스하고, 관람객도 드물다. 김선두의 그림은 길이가 30미터쯤 되어 보이는 대작이다. 산을 그렸는데, 김선두 특유의 선과 재치가 돋보인다. 김억은 '수원화성' '대추리의 풍경' 등으로 이름을 떨친 판화 화가이다. 부각법이 돋보인다. 새의 눈이러지만 독수리의 눈이다. 눈이 보리가 되어 풍경의 뜬가지도 짜여낸 것 같다. 하지만 조명도 적절하지 않고, 칸막이도 없다.

중심 무대는 목포 문화예술회관이다. 전 세계 11개국에서 2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2017 전남 국제 수묵 프레비엔날레는 본전시가 열리는 목포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전시 프로그램 10건, 교육 체험 공연 프로그램 14건 등 2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본전시에는 이철주, 이종상, 송수련, 조환, 김대원, 허진, 허달재, 김선두 등 70명의 한국 작가와 고딘 브래드 비어, 중국의 자오치, 타이완의 홍

건선(洪根深) 등 27명의 외국 작가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특별전시에는 한국의 김억, 김중경, 이인, 박문중, 임만형, 이이남 등과 호주의 에드워드, 영국의 사이몬 웨덤 등 국내외 작가 135명이 참여했다.

허달재와 김중경의 그림은 서양화 기법에 먹선을 얹었다. 조각조각의 형질을 기운 것 같다. 기운 틈에 여백이 있다. 먹이 지나간 길이 언어나면, 먹이 지나가지 않은 면은 침묵이다. 많은 말 틈에서 침묵만이 말을 하고 있다. 이철주의 그림은 여백을 위해 화면의 대부분을 메운 그림이다. 화가는 굵은 선을 펼친 판화 화가이지만, 돋보이는 것은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여백만으로 그린 것 같다.

먹선이 많은 그림은 합주곡 같다. 박종갑의 그림이 그렇다. 우거진 나무의 잎들이 저마다 소리를 낸다. 문득 한 곳이 조용하다. 소리가 뭉친 부분이 있고, 소리가 없는 부분이 있다. 소리와 침묵 사이에서 개성으로 완성된 음악들, 눈이 닿는 곳마다 다른 음악이 나온다.

남도의 그림이 회화사의 한 쪽을 차지한 것은 소치 허유로부터이다. 그가 점을 찍었고, 외재 허백련과 남봉 허건이 선을 그었다. 그리고 금봉 박행보와 계산 장찬홍 등에 이르러 남종화는 완성되었다. 연

진회 사람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외재가 1944년 문을 닫았지만, 외재 허백련의 제자에서 제자가 맥이 이어져, 최근의 송대성까지 그 맥이 닿는다.

금봉은 남종화의 장자다. 생존 화가 중 소치와 외재의 맥을 그대로 잇고 있다는 평을 받는 이들 중 앞자리에 놓여 있다. 남도의 화가들 중 외재 허백련을 공부하지 않는 이는 드물다. 관동하건 배끼전 비껴가 가진 외재를 건너야 그림이 있다. 외재 허백련의 묘소에 오랫동안 시묘살이를 했던 이가 있다. 외재의 마지막 제자라 말해지는 계산 장찬홍이다. 몸이 불면한 그는 목발을 짚고 한라산을 다섯 번 올랐던 강자다.

금봉은 그림을 본다. 먹이 남긴 농담은 평생 동안 가족들 뒤따라다니리다가 늙은 누이의 마음처럼 무르고, 선 끝은 이른 봄 새순처럼 날카롭다. 운염범이라 했다. 농담이 있다. 북의 화가인 이견의 그림이 마주 보고 있다. 선과 색이 다르다. 색이 없는 박행보의 그림에는 생동감이 있고, 색을 가미한 이견의 그림에는 깊이가 있다. 색을 쓴 그림은 단순해지고, 색이 없는 그림은 농담과 선의 운용이 자유롭다. 이런 역설이 둘을 하나이게 한다. 남북도 하나이고, 시도 음악도 춤도 하나인, 이것은 남도다.

無等鼓

광주 가야 챔피언스필드 3루측 관중석에는 커다란 숫자가 두 개 걸려 있다.

7과 18. 영구 결번이 된 타이거즈의 레전드 이종범과 선동열의 등번호다. 선동열은 한국시리즈 여섯 차례 우승과 0점대 방어율 세 차례를 기록하며 '국보급 투수'라는 찬사를 받았고,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타격·수비·주루 플레이 등 모든 부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

쳤다. 37년 프로 야구 역사를 정리할 때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이라 할 정도로 이들의 플레이는 눈부셨다.

영구 결번

영구 결번은 은퇴할 때 무관로도 함께 은퇴시키는 제도로, 선수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다.

프로 스포츠 최초의 영구 결번은 1935년 미식축구팀 뉴욕 자이언츠의 레이 플래허티 선수의 등번호인 1번. 야구에서는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가 1939년 루게릭의 4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면 당시 투수인 에드워드 맥카비는 4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다. 그는 팀의 4번 타자로 활약하며 2130경기에 연속 출전해 '철마'로 불렸지만 근위축성측색경화증(후에 루게릭병으로 불림)이라는 희귀 병에 걸려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가장 유명한 영구 결번은 재기 로빈슨의 42번. 흑인 최초의 메이저리거로 그라운드 안팎의 인종 차별을 극복하며 야구를 '미국의 국민 스포츠'로 만든 공로로 전 구단 영구 결번으로 지정됐다. 로빈슨이 첫 경기를 치른 4월 15일엔 메이저리그 모든 선수가 등번호 42번을 달고 그를 추모한다.

한국 프로 야구에는 올해 지정된 이승엽까지 15명의 영구 결번이 있다. 한화·두산·삼성이 3명씩으로 가장 많고 KIA·LG는 각각 2명, 롯데·SK는 1명씩이다. 한국시리즈 11회 우승에 빛나는 최고 명로 구단 KIA, 스타도 많고 사연도 많은데 영구 결번이 2명뿐이라는 건 아쉽다. 원년 흥런왕 김봉연의 27번과 해태 시절 V9 금자탑을 쌓은 김응용 감독의 39번은 영구 결번 지정을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올 시즌 정규 리그와 한국시리즈에서 양손에 MVP 트로피를 들어 올린 양현종은 시상식에서 "영구 결번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등번호 54번을 챔스필드에 새겨 타이거즈의 전설이 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의 꿈은 팬들의 꿈이기도 하다.

한국 프로 야구에는 올해 지정된 이승엽까지 15명의 영구 결번이 있다. 한화·두산·삼성이 3명씩으로 가장 많고 KIA·LG는 각각 2명, 롯데·SK는 1명씩이다. 한국시리즈 11회 우승에 빛나는 최고 명로 구단 KIA, 스타도 많고 사연도 많은데 영구 결번이 2명뿐이라는 건 아쉽다. 원년 흥런왕 김봉연의 27번과 해태 시절 V9 금자탑을 쌓은 김응용 감독의 39번은 영구 결번 지정을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올 시즌 정규 리그와 한국시리즈에서 양손에 MVP 트로피를 들어 올린 양현종은 시상식에서 "영구 결번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등번호 54번을 챔스필드에 새겨 타이거즈의 전설이 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의 꿈은 팬들의 꿈이기도 하다.

가장 유명한 영구 결번은 재기 로빈슨의 42번. 흑인 최초의 메이저리거로 그라운드 안팎의 인종 차별을 극복하며 야구를 '미국의 국민 스포츠'로 만든 공로로 전 구단 영구 결번으로 지정됐다. 로빈슨이 첫 경기를 치른 4월 15일엔 메이저리그 모든 선수가 등번호 42번을 달고 그를 추모한다.

한국 프로 야구에는 올해 지정된 이승엽까지 15명의 영구 결번이 있다. 한화·두산·삼성이 3명씩으로 가장 많고 KIA·LG는 각각 2명, 롯데·SK는 1명씩이다. 한국시리즈 11회 우승에 빛나는 최고 명로 구단 KIA, 스타도 많고 사연도 많은데 영구 결번이 2명뿐이라는 건 아쉽다. 원년 흥런왕 김봉연의 27번과 해태 시절 V9 금자탑을 쌓은 김응용 감독의 39번은 영구 결번 지정을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올 시즌 정규 리그와 한국시리즈에서 양손에 MVP 트로피를 들어 올린 양현종은 시상식에서 "영구 결번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등번호 54번을 챔스필드에 새겨 타이거즈의 전설이 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의 꿈은 팬들의 꿈이기도 하다.

가장 유명한 영구 결번은 재기 로빈슨의 42번. 흑인 최초의 메이저리거로 그라운드 안팎의 인종 차별을 극복하며 야구를 '미국의 국민 스포츠'로 만든 공로로 전 구단 영구 결번으로 지정됐다. 로빈슨이 첫 경기를 치른 4월 15일엔 메이저리그 모든 선수가 등번호 42번을 달고 그를 추모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경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FAX 222-4918)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회 220-0652 사진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